

2018년 10월 24일, 제주시 외도1동 절물마을회관, 이효순 조사.

좌사남(여, 1930년생, 제주시 외도1동)

-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출생, 제주4·3사건으로 고향을 떠나 한림읍 명월리와 한수리에서 살다가 현재는 외도1동 절물마을에서 10여 년째 거주하고 있다.

• 줄거리: 보습장수가 길을 가다가 도둑놈을 만나 모래를 던져 도망을 갔는데 밤에 같은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도둑놈은 보습장수도 여기 있다는 주인의 말을 듣고 죽이려고 했다. 보습장사는 이상히 여겨 도둑의 아들과 잠자는 위치를 바꿔 누웠더니 도둑이 잘못 알고 자기 아들을 죽이게 되었다.

[조사자] 재미진 옛말. 골아줍서.

[제보자] 옛날에 보습장시가 잊어낫어. 보섭이렌 헌 게 밧 가는 보섭. 쟁기 매와그네 영 밧 가는 보섭. 그 보섭장시가 잊엇인디 보섭장시가 아이라. 아이가 보섭을 팔레 정 뎅기당 도둑놈을 만낫어. 만나난

“너, 보섭 판 거 내노라.”

허난 무서울 거 아니?

“아이고, 나 눈 크게 뜨민 겁납니다.”

허난 그 도둑놈 남자가 눈을 번쩍 트난

“아이고, 무습다.”

허멍 모래를 쥐엉으네 도둑놈신디 탁 맞춘 거라. 모래를 쥐언 맞추난 모래 눈에 막 들엉 걷지 못허지. 경허난 이제 그 아이 보섭을 지엉 막 뛰어 둘은 거라. 뛰어 둘으난 어떤 집이 강 집을 빌엉, 옛날은 질커름 걷당 날 어두우민 놈의 집 빌엉 자주기.

거난 방을 빌어낸 ‘잣당 가쿠다.’ 허난 경허렌. 방을 빌언 누웠인디. 눈에 모래든 도둑놈은 ‘아유, 아유.’ 허멍 온 거라. 오라가난 ‘무사마씸?’ 허난 경 골으난 “어떤 보섭장시가 판 돈 내노렌 허난 모살로 눈 탁 맞춰 부난 눈 뜨지 못허엉 겨우 집이 촛아왓우다.”

허난

“아이고, 좀좀헙서. 저기 보섭장시 누웠수다.”

허난 밤엔 이녁 아들은 도에 눕지고 보섭장신 안에 눕젓어. 죽이젠. 이녁 아들은 도에 눕지고. 보섭장시는 밤 뒤난 칼 골양 무시 거 드작드작 허는 소리가 나니까. 보섭장시 아이는 이상혜 베난, ‘야이허고 누운 자리를 바꽝 누워야겠다.’ 허영 아들을 쑥 허게 밀려된 아들 누워난 디 보섭장시 아이가 눕고 도둑놈 아들은 안트레 쑥 허게 밀려 부난. 거난 죄렌 헌 게 다 이녁 앞이 당허는 거. 게난 그 도둑놈은 보섭장시 죽이노렌 헌 것이 이녁 아들을 죽인 거라. 칼 골안 간 죽연.

“아이고, 이거 사람들 아이 볼 때 어디레 치와 불어사켜.”

허연 사람들 아이 볼 때 치우느렌 어디레 두가시 져당 어디 물러레 강 데껑 집에 왕 보난 이녁 아들은 엊어. 보섭장시는 이젠 어디 보섭 지엉 도망가 불고. 경허난 그런 옛말이 잊어. 거난 놈이 자식 죽이젠 허민 지 자식 죽여지는 거. 죄 받는 거.

- 핵심어: 보섭(보습), 장시(장수), 도둑놈, 모살(모래), 자식, 죄, 칼, 아들